

■ 수백억대 주식사기 파문... '전기차 선도도시' 현주소는?

# '장밋빛 페달' 너무 밟았나... 방전된 영광 '회색빛'

## 전기차 200대 구입한다더니 고작 32대에 그쳐

## 30개사 유치 클러스터 구상 '빼적'... 3곳만 가동 중

“정부가 친환경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했고 영광군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중이니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2800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가 영광군에 위치한 전기차업체의 비상장 주식에 수백억 원을 ‘묻지마’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다.

그렇다면 정부와 영광군이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며 거창하게 추진했던 ‘친환경 전기차 선도도시’ 사업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말뿐인 선도도시=영광군은 지난 2011년 환경부 지정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된 뒤 2014년까지 총 사업비 127억원을 투입, 영광군 일대에 전기차 200대를 관공서와 주요 관광지 등에 보급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더 나아가 영광군 대마일산산업단지 일대에 전기차 생산 및 부품 제작 업체 등 30개 업체를 유치해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CT&T, AD모터

스, 에코네스 등 4개의 전기차 제작 업체가 입주를 결정했다는 내용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상황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전기차 관련 업체는 투자를 포기하거나 미뤄고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고작 32대만 보급됐다. 충전기는 46기만 설치했을 뿐이다. 애초 전기차 보급 목표(200대)의 16%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전

기차 200대를 운행하면서 260t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와 9460만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청사진이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영광군은 올해 전기차 200대 구입을 위해 군비 16억5000만원, 국비 6억5000만원 등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구입 계획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극심한 경기 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국내 최대 근거리 전기차 완성차 기업인 ㈜CT&T는 투자를 포기했다.

대마산단 내 5만평 규모의 공장을 짓고 700억원을 투자, 연간 4만3000대의 전기를 생산할 것이라던 AD모터도 거창한 협약식만 했을 뿐이다. 전남도, 영광군이 수십차례 홍보했던 30개 업체의 장밋빛 클러스터에는 고작 3개 업체만 가동 중이다.

장밋빛 전망으로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로는 영광군의 전기차와 오토바이, 자전거 등 친환경 운송수단의 제작과 성능검사 시설이 밀집된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심의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 지원도 ‘허구호’= 영광군의 전기차 선도도시 육성 사업이 지지부진한 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걸고 친환경 전기차 사업을 육성하겠다는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도 한몫을 한다.

예를 들면 저속 전기차의 경우 제한속도 60km이하 도로에만 운행이 가능한 법률(자동차관리법 35조)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기가 쉽지 않다.

광주~영광~법성을 잇는 국도 22호(총 27.7km)만 하더라도 국도와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상·하행 일부 구간(10.2km)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이마저 올 6월까지만 시범 운영된 뒤 향후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선풍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인 인권보장하리” 광주장애인 총연합회 회원들이 18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광주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지검 차장검사 오정돈 고검검사급 등 인사

검사장급에 이은 검찰의 후속 인사에 따라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에 오정돈 대구서부지청장(사법연수원 20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8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 420명 및 평검사 3명(파

견 포함)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경우 형사1 부장에 김국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 부장, 형사2부장에 김현철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형사3부장에 박석재 의정부지검 공판부장이 전보 발령됐다. 또 특수부장에 신응석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공안부장에 이근수 서울고검 검사, 강력부장에 정희원 대

검찰청 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목포지청장에는 이수철 서울고검 검사, 장흥지청장에 김한 광주지검 강력부장, 순천지청장에 김창 울산지검 차장검사, 해남지청장에 임현 천안지청 부장검사 등이 발령됐다.

담양 출신인 양부남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은 대구지검 제2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6분 / 해질 19시 08분 / 달돋이 12시 33분 / 달질 01시 35분

**주말 비소식** 구름 많은 가운데 주말 비 오는 곳 있겠다.

구분	기온
광주	구름많음 4/18℃
목포	구름많음 5/14℃
여수	구름많음 7/14℃
나주	구름많음 2/18℃
완도	구름많음 5/15℃
구례	구름많음 3/18℃
강진	구름많음 3/15℃
예남	구름많음 3/16℃
장흥	구름많음 3/16℃
순천	구름많음 2/16℃
영광	구름많음 3/14℃
진도	구름많음 5/14℃
전주	구름많음 3/17℃
군산	구름많음 3/15℃
남원	구름많음 1/18℃
홍산도	구름많음 5/1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김기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1.5~2.5m 2.0~4.0m 주의 높음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1.5~2.5m 주의 높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목포 07:49 00:1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20:03 13:5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5m 여수 03:00 09:3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1.0~2.0m 15:45 21:5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6/10	3/18	4/20	6/18	10/20	8/18

### 동부서장 오운수 북부서장 박석일 경찰청 총경급 인사

경찰청은 18일 안병호 영암서장을 광주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발령하는 등 광주·전남을 비롯, 총경급 300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 김영창 청문감사담당관은 광양서장, 오운수 정보과장은 광주 동부서장, 박석일 경무과장은 광주 북부서장, 김도희 홍보담당관은 해남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김학남 과감서장은 광주청 청문감사담당관, 안동준 해남서장이 경무과장, 전준호 동부서장은 정보과장, 하태욱 북부서장은 보안과장으로 발령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의 경우 박우현 서울청 경무과 지도관이 홍보담당관에, 이유진 강진서장이 경비교통과장에, 박승주 홍보담당관은 순천서장, 채수창 경비교통과장은 화순서장으로 자리를 바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박관현법 입법 가치 있다”

**법원관계자 법사위 답변**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2심 도중 옥사한 고 박관현 열사의 재산 청구가 기각된 이후 형사소송법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움직임(광주일보 18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 관계자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은 18일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박관현 열사는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재임을 청구했는데 형사소송법의 한계로 인해 기각됐다”며 “다른 사람들은 ‘헌법의

존립성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박관현 열사는) 사망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기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적 미비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제도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라도 입법해서 해소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차관성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으로서는 무죄판결까지 재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입법론적으로는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박지을기자 jkpark@kwangju.co.kr

### 결혼이민자 대상 폭력범 구속수사 법무부

다문화가정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초동수사 단계부터 결혼이민자에게 통역이 지원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근절과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결혼이민자 대상 가정폭력사범 처리 절차 지침’ 마련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초동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의사를 정확히 파악·반영하기 위해 통역 활용이 체계화된다.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 의사가 사건 방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개시부터 언어장벽 등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Dry Finish**  
 REFRESH YOUR SPIRITS. BREAK AWAY FROM THE DAILY GRIND. Dry Finish IS BREWED WITH OUR EXCLUSIVE Dry Finish™ PROCESS USING THE SELECT DRY YEAST.

**시원함의 끝**  
 드라이공법이 더 시원하다

세계적인 주류 품평회 몽드셀렉션 3년 연속 금상수상

2011 GOLD AWARD, 2012 GOLD AWARD, 2013 GOLD AWARD

광고 :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염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